

화물차에 지하철까지 “총파업”…노동계 ‘동투’ 거세진다

“안전운임” 화물연대 24일부터 총파업…물류대란 우려
 25일에는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급식·돌봄’ 차질 예상
 “인력감축 철회” 30일 서울 지하철…내달 2일엔 철도도
 노란봉투법·굵직한 노동정책 앞두고 투쟁 동력 커질 듯

노동계가 이번 주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동시다발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부터 학교 비정규직,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까지 요구안 관철을 위한 총파업을 줄줄이 예고하면서 올해 노동계 ‘동투(冬鬪·겨울 투쟁)’는 어느 때보다 격렬해질 전망이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들이 또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당시 8일간의 파업 끝에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는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아무런 진전 없이 종료됐으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

부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책임 회피만 반복하고 있다는 게 화물연대 주장이다. 화물연대는 “우리는 이러한 국토부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넘어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총파업은 유례없이 강력한 총파업이 될 것이다. 일시에 모든 산업이 멈추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총파업보다 투쟁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명으로 전체 화물 노동자(42만명)의 6% 수준이지만, 당시 시멘트·레미콘·자동차·철강·유통 등을 중심으로 운송과 출하가 중단되면서 곳곳에서 물류 차질과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25일 하루 총파업을 진행한다.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이들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사용자 측인 교육청이 줄곧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은 일부 수당 연 5만~10만원 인상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성원 대부분이 학교에서 급식·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이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상적인 급식·돌봄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에도 총파업으로 전국 1020개 학교에 급식이 아닌 대체식이 제공됐다. 이달 말과 내달 초에는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돼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정부와 서울시가 ‘인력감축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의 10%에 달하는 인력 1539명을 줄이는 감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만약 노조가 예정대로 총파업에 나서면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행 횟수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철도노조도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한

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코레일의 인력 총원 등 근본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달 2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 파업 준비 사업장과 대정부 공동 파업을 결의한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파업은 국가 책임 강화와 국민안전 실현,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승리의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각종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둔 만큼 통상 노동계는 정기국회 막바지인 11~12월 대국회 투쟁 중심으로 ‘동투’에 화력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잇단 총파업까지 맞물리면서 투쟁의 강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굵직한 노동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동력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환기자



메말라가는 완도 척치계 19일 오후 전남 완도군 금일면 척치저수지 저수율이 4.3%대까지 낮아지며 가장 자리 바닥이 갈라져 있다.

“김장비용 지난주보다 내렸다 배추 20포기 기준 21만5000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14개 품목 조사…일주일새 2.9% ↓

각 가정마다 김장이 한창인 가운데 김장비용이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하는 등 고물가 속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배추 20포기 기준 김장비용은 21만5037원으로 일주일 전(11월 10일) 보다 2.9%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중순과 비교하면 12.2% 낮은 수준이다. aT는 지난주에 이어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 가격을 조사했다. 품목별로 보면 김장재료 중 비중이 큰 배추, 무, 고춧가루 등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비용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배추 20포기 가격은 6만1764원으로 전주(6만4703원)보다 4.5% 내렸다. 전년과

비교하면 32.6% 저렴한 수준이다. 무는 5개 기준 1만2358원으로 전년보다는 다소 비싸지면 전주보다는 6.5% 하락했다. 고춧가루는 2kg에 6만81원으로 전주보다 3.4% 내렸고, 쪽파(-12.6%), 멸치액젓(-2.9%), 미나리(-1.6%), 새우젓(-0.6%), 마늘(-0.4%) 등도 하락했다. 반면 갖(6.5%), 대파(1.9%), 양파(1.6%), 생강(1.5%)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올랐지만 전체 김장비용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aT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다음 달까지 견고추, 마늘, 양파, 소금 등 비축물량을 시장에 지속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통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김장재료 할인 판매도 진행한다. 최이슬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